

語幹末 母音 脫落에 대하여

— 特히 濟州島方言과 關聯해서 —

金 洪 植

I

語彙는 兩面性 卽 音聲을 통해 表現되는 音韻形態 (form, signifiant)와, 또 그것이 指示하는 意味(meaning, signifiè)와의 兩面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言語의 變遷도 이 兩面에 걸쳐서 變해 왔고, 또 앞으로도 變하여 나갈 것이다.

言語가 變해가는 커다란 要因의 하나가, 人間이 勞力을 절약하려는 經濟的 本能에 依한다고 말한다. 卽 言語에 있어서 音韻變化의 大多數가 그 原理에 依해서 이루어져 왔지만은 語意面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原因에서 變하여 왔을 것이다.

모든 言語에 있어 音韻的 觀點에서, 言語의 變遷해 온 事實을 調査해 볼 때, 語音은 縮小되고 簡略化의 길을 걸어 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國語에 있어서도 音韻變化의 大部分이 語彙 外形을 漸次 縮小시키는 結果를 가져왔음을 알게 된다. Jespersen은 言語의 語彙는 처음엔 多音節로 된 長形에서부터 次次 縮小의 길을 걸어 왔으리라는 主張이다.¹⁾ 이것은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事實이요, 또 國語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 왔음이 分明하다.

本 小稿에서는 音韻脫落에 依한 語形 縮小現象中에서도 特히 語幹末 母音의 脫落現象에 대해서 考究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말은 起源的으로 二音節語가 縮小되어 單音節語로 發達된 것이라고 하는데, 語幹末 母音 脫落現象은 우리말에 있어 일찍이 遂行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다만 文獻資料를 통해서 過去 우리말의 語幹末 母音 脫落現象에 대해서 그 樣相을 더듬어 보고, 또 標準語에 대해서 本島 方言에 몇가지 特異한 語形이 實現되고 있으니, 이 共時的 狀態가 보여주는 暗示에 根據하며, 鮮初 또는 그 以前時代의 狀態까지도 어느 程度 再構하여 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것은 現代의 諸 方言은 우선 文獻資料의 缺乏을 補足하여 주는 國語史 資料의 산 寶庫라고 할 수 있으니, 따라서 方言은 國語史에 매우 重要한 貢獻을

1) Jespersen: Language, P. 419

하고 있는 것이며, 文獻 研究만으로는 想像도 할 수 없었던 생생한 歷史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濟州島는 地理的으로 大坵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本土와는 바다를 隔한 絶海의 孤島라는 地理的 條件은 여기에 두터운 言語障壁을 形成케 하였으니, 言語의 交流는 自然 막히게 되고, 따라서 獨自의 發展을 하여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 言語發展은 本土의 그것보다는 훨씬 後進的이어서 音韻, 語彙, 形態 등의 諸 方言現象이 보다 더 많이 古代現象을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며, 더구나 文獻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語彙의 古形態도 殘存하고 있는 듯 하며, 國語原形 再構上 大端히 重要視 된다고 하겠다.

本 小稿에서는 語幹末 母音의 脫落現象과 關聯해서 本島方言 形態가 보여 주는 몇가지 特異性에 대하여 方言學的 또는 言語地理學的으로 그 發達을 考察하고 文獻語 및 現在의 標準語形과의 相互關係를 究明하여 보고, 나아가서는 文獻 以前時代의 言語狀態까지도 窺視하여 볼까 한다.

本稿의 古語 資料는 南嶺祐氏의 「古語辭典」 및 여러 論文에서 轉用한 것인데, 이들은 아래의 文獻에서 採取한 것인데 便宜上 그 略號를 定하여 둔다.

冊 名	刊行年代	略 號
龍飛御天歌	1445	<龍歌>
訓民正音解例	1446	<訓正>
釋譜詳節	1447	<釋譜>
月印千江之曲	1449	<月印>
月印釋譜	1459	<月釋>
능嚴經諺解	1462	<능諺>
法華經諺解	1463	<法華>
永嘉集諺解	1464	<永嘉>
杜詩 諺解初刊	1481	<杜詩.初>
樂學軌範	1493	<樂軌>
樂章歌詞		<樂章>
訓蒙字會	1527	<字會>
杜詩諺解重刊	1632	<杜諺.重>
譯語類解	1670	<譯語>
蒙山和尚法語略錄		<蒙山>

II

1. 用言에 있어 오늘날 標準語에서는 그 語幹末音이 子音, 即 閉音節로 끝나는 單音節인

에 대해서, 濟州島 方言(以下 '本島方言'이라 稱함)에서는 語幹末에 母音이 더 添入된 母音型 卽 開音節로 實現됨이 그 特色이다.

갈다.(加)	잇다.(繼)
ㅁ트다	이스다
ㅁ트면	이스면
ㅁ트난	이스난
ㅁ트고	이스고
ㅁ트지	이스지
깎다.(削)	심다.(植)
가끄다	싱그다
가끄면	싱그면
가끄난	싱그난
가끄고	싱그고
가끄지	싱그지

以上 代表的으로 들어본, 위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標準語形으로는 單音節이나, 本島 方言形으로는 二音節語로서 그 語幹末음이 母音「으」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本島 方言現象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學者들이 指摘한 바 있거니와, 李崇寧博士는 “國語의 語幹末음이 陸地語면 子音일 것을 本島方言에서는 一見 “으”와 더불어 語幹末음이 母音型으로 된 것이 있다”²⁾고 하였으며, 玄平孝博士는 오늘날 標準語에서 一音節語幹인 「쉬-」, 「짜-」, 「닿-」들의 語形에 대해서 本島方言에 나타나는 「가끄-」, 「서끄-」 「만ㅎ-」들과 같은 二音節 語幹形은 文獻의 事實과 結付시켜서 考察하여 볼 때, 15, 16世紀의 古形이 아직도 殘存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³⁾

言語地理學은 各語形의 分布 狀態에서 主로 周邊에 分布 狀態를 보여 주는 語形을 中央에 分布 狀態를 보여 주는 語形보다는 古形으로 規定짓고 있는 것이니, 本島 方言에 있어서의 分布 狀態를 言語의 底層으로 推定하여 볼 수 있음은 容易한 일이다.

그러면 本島 方言의 이와 같은 語形이 現代 標準語形과는 어떠한 關係에 있는 것이며, 또한 國語史的으로 볼 때 어떠한 特徵과 位置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鮮初의 文獻 語形과 本島 方言, 그리고 標準語形과를 比較 考察하여 相互關係를 究明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앞에 例擧한 네 語彙를 中心으로 하여 考察하여 본다.

(1) 갈다.(加)

2) 李崇寧:「國語學論攻」, (서울: 東洋版社, 1960), P. 292

3) 玄平孝:「濟州島方言의 層位學的 考察」, 藏菴 池憲英先生 華甲紀念論議, 1971), PP. 838~40

現代 標準語에서는 그 活用이 /갈다, 갈고, 갈지, 갈으니, 갈으면.../ 등과 같이 되어 그 語幹形이 單音節인 /갈- /에 대해서, 鮮初 文獻에서는 여러 形態로 나타나고 있어, 그 語幹形을 推定하기가 좀 困難한 것이다.

東海人 마시 저게 곤하니 <龍歌.6>

그 쟁리 꾸메서 두라음 곤하야 <月印.二.29>

大魔王의 이리 이 곤하야 <月印二.129>

너도 쏘 이 곤하다. <龍歌.二.23>

心地를 아디 몬하야 이 곤하도소니 <永嘉.下.105>

始終이 이 마투실센 <龍歌.79>

氏는 姓마투 마리라 <月印一.8>

사람과 마티 너기시니. <龍歌六.5>

쁘들 세요타 山마타하며 <法語.九>

하늬 버리 눈 곤 디니이다. <龍歌.50>

世尊 곤 가지이다. <月印二.9>

以上 語例에서 볼 때 鮮初文獻에서는 그 語形이 /곤하-, 마투-, 마티-, 곤-/ 등과 같이 나타나고 있어 이 語辭의 語幹形 推定을 當惑하게 한다. 여기서 이들 語形들이 形成된 經緯를 推察하여 보고, 오늘날의 標準語形 및 本島 方言形과의 相互 關聯을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許雄 教授는 鮮初文獻의 語例를 들고

이러한 事實로 미루어 보면 이 말의 語幹은 元來「곤하」로서 「곤」에 「하」가 接尾한 것이었는데, 「곤하」(마투)의 第二音節의 ㅎ을 調整母音으로 誤認하여 語幹에서 「ㅎ」를 切斷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李朝 初期는 「곤하」가 變化의 過渡期이었던 것이다.⁴⁾

라고 하였음에 대하여 金亨奎博士는 “/갈다(如)/의 古語 語幹은 /곤하-/였다. 아래의 子音과 連결될 때는 /곤-/으로 나타나고, 母音과 連結될 때는 /곤하-/로 나타났으며, 現在 와서는 끝의 [ㅎ]音이 [ㄷ]과 結合하여 /갈- /의 語幹을 구성하게 된 것으로 본다”⁵⁾ 라고 하였다.

또 朴炳采教授는 오늘날 「골(갈)」은 「곤하」의 音節 縮約形으로 굳어진 形⁶⁾이라고 하였으며, 梁柱東博士는 「마투·마티」의 形容詞原形을 「곤」으로 想定하기 쉬우나 古綴엔 반듯이

4) 許雄:「龍飛御天歌」, (서울: 正音社, 1956), PP. 56~7

5) 金亨奎:「古歌謠註釋」, (서울: 一潮閣, 1968), P. 30

6) 朴炳采:「萬麗歌謠釋研究」, (서울: 宣明文化社, 1971), PP. 145~48

「곶」이니即「곶호」는「만호」와 똑 같은「호」(爲)의 添加形 곧「-호」型 造語이니 此等語의 語根은「곶」만 그 原形은「곶호·만호」이므로 古綴은 그 點을 意識的으로 峻別하여「곶」, 「곶호」, 「곶호야」로 記寫한 것이라고 하였다.⁷⁾

위에 든 諸學者의 論旨는 大體로, 그 語幹形을 /곶호- /乃至 /곶호- /로 推定하고 있으며, 여기서 音節의 縮約乃至 音의 結合으로서 現在의 /곶- (如) /語形이 形成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첫째, /곶호- /形은 그 語根이 /곶- /이며 여기에 /호- (爲) /가 添加되어 /곶호- /形이 形成되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造語型으로는 鮮初 文獻語 /만호- /를 들 수가 있다.

時節이 모던 이리 만호야 < 月 號 . . . 16

그 사루미 子息이 만호야 < " . . . 7. 9

세 하노로 煩惱이 만호고 < 聲 譜 . . . 56

衆生이 띠 만호야 < " . 六. 36

以上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호- /는 /만호고, 만호면, 만호야... /와 같이 活用됨을 알 수가 있으며, 이것은 /만- /에 /호- /가 添加되어 /만호- /의 語幹形을 形成하였다고 推定되며, 現代語形인 /곶- /形은 아마 /만호- /에서 終母音이 弱化 脫落되어 形成된 것이겠다.

이와 같은 標準語形인 /곶- /에 대해서 本島方言에서는 그 活用に /만호니, 만호고, 만호면, 만호야, 만호지 / 등과 같이 實現됨을 볼 수 있으니, 이 것은 鮮初의 文獻語形과 全然 同軌인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本島方言에서는 아직도 語幹末 母音 脫落 以前의 鮮初의 語形이 殘存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國語에 있어 語根에 /호- / 添加型 語辭가 鮮初 文獻資料에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造語型은 高麗 乃至 그 以前부터 있어 오던 것이 아닌가도 推定되는 것이다.

稻史叱枝次高友好 (叢香婆郎歌)

不冬喜好只置乎理叱過 (隨喜功德歌)

吾輩頓都叱逐好女音叱多 (常隨佛學歌)

위 鄉歌에서 叢香婆郎歌의 「高友好」를 梁柱東博士는 「노파(늬라)」로 解讀하여 高를 뜻하는 語辭의 語幹形을 /늬호- /로 보았으며, /곶- /은 /늬호- /의 縮略音이라고 하였다.⁸⁾

7) 梁柱東:「麗譜箋注」, (서울: 乙酉文化社, 1957), PP. 162~3

8) 梁柱東:「古歌研究」, (서울: 博文出版社, 1954), PP. 319~66

또 鷄林類事에 보면

「高曰 那奔」

이단 記錄이 있으니, 이 「那奔」은 「노픈」의 記寫일 것이다. 鮮初文獻에서는

城 높고 다리 업건마르 <龍歌. 34>

崇은 노풀씨오 <月曆. 23>

와 같이 그 語幹形이 單音節인 /높-/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現代 標準語形과 同形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以上 /높-(高)/語辭의 變遷하여 온 過程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ㅎ-/型 用言의 起源이 新羅時代까지도 遡及하여 올라 갈 수 있는 것임을 推定케 한다. 그래서 이 語形은 後代에 내려 오면서 語幹末母音의 脫落에 依해서 單音節인 /높-/形으로 變하였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서 本島 方言形은 /노프니, 노프고, 노프면, 노프지, 노프다/等과 같이 그 語幹形이 二音節인 開音節로 實現되고 있음은 本島 方言이 15世紀 文獻語 以前의 古形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國語史的으로도 매우 意義가 크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體言이나 用言에 있어, 그 末音이 激音 /ㅌ, ㅋ, ㆁ, ㅍ/들의 音으로 그친 말, 또는 /ㅎ/末音을 가지는 語彙는 그 原語는 /ㅎ-/音 添加形인 二音節形 即 /놉ㅎ-(訖), 꺾ㅎ-(如), 받ㅎ-(吐), 좃ㅎ-(逐), 올ㅎ-(正), 단ㅎ-(多), 골ㅎ-(飢)…/等과 같이 二音節形이었던 것이 後代에 와서는 語幹末母音의 脫落으로 單音節形으로 縮約되는 過程에서, 그 앞에 있는 子音과 合하여 그 末音을 激音化시켰거나, 또는 ㅎ音이 남게 되어 /놉-, 꺾-, 받-, 좃-, 올-, 단-, 골-…/等の 單音節 語形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번째의 /ㅁ 투-/形은 /꺾ㅎ-/에서 두 子音(ㄷ·ㅎ)이 合하여 aspirate化한 形態로서, 本島 方言에서는 아직도 共時態로서 이 語形의 實現을 볼 수 있으니, 이는 本島 方言이 語幹末母音 脫落 以前의 鮮初時代 言語의 底層을 保有하고 있음이라고 하겠다.

세번째의 /ㅁ티/는 /꺾ㅎ-/의 副詞形으로 /꺾ㅎ-/의 語幹末母音의 脫落으로 縮約된 /꺾ㅎ-/에 副詞形成語尾 /이/가 添加된 것이니, 卽 /꺾ㅎ이>꺾히>ㅁ티/로 된 것이라고 본다.

네번째의 /꺾/은 /ㅎ-(爲)/의 添加型 卽 /꺾ㅎ-/型이 形成되기 以前의 語根으로 古語에서는 直接 副詞로 使用되었다.

以上 言述한 바와 같이 鮮初의 文獻語 /꺾ㅎ-/는 그 語根 /꺾-/에 /ㅎ-(爲)/가 添加되어 /꺾ㅎ-(ㅁ투)/와 같이 二次的 語幹型을 形成한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이 語形은 本島 方言에서 實現되는 /ㅁ투-/와 比較하여 볼 때 第二音節에서 /·/母音이 /-/母音으로 바뀌었을뿐 全然 同軌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言語地理學的으로 보나 文獻的 事

實로 보아서 本島方言이 15世紀 또는 그 以前 時代의 古形임을 推定할 수가 있는 것이며, 李朝初期는 /ㄹㅎ- > ㄹ투- > -군> 갈- /으로 變하여지는 한 過渡期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날 標準語에 있어서의 /갈-, 많-/과 같은 單音節 語形은 아마도 /ㄹ투-, ㄹㅎ-/와 같이 二音節로 된 開音節語기던 것이 語幹末 母音이 弱化 脫落되어 이루어진 語形이라고 본다.

(2) 잇다(繼)

물 우희 니셔 터서나 <龍歌·41>

聖神이 니스샤도 <龍歌·125>

連은 니술씨라 <訓>

이 두리 미상 자취 니리터라 (此輩常接跡) <杜·七·27>

상네 닛제호야 (常常相續) <蒙山·九>

니술승 承, 니술속 續 <頌合下·九>

以上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鮮初文獻에서 /잇다(繼)/語幹의 活用은 /니스니, 니스며, 니스샤, 니어, 닛고, 닛디,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그 語幹形은 /닛-/임을 알 수 있겠고, 活用に 있어서 子音 위치에서는 子音衝突을 避하기 爲해, 母音을 挿入시켜 /니스-(니스-)/形이 되는데, 이때 語幹末子音 /스/音이 母音間에서 弱化되어 /스/音으로 되어 卽 스變則活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標準語에 /잇다(繼)/는 頭音法則에 따라 /잇다/로 變했으며, 또 스變則形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서 本島 方言 形態와 比較하여 보면 그 활용에 있어서, /이스고, 이스지, 이스니, 이스던, 이스라, 이스라…/ 등으로 實現되고 있어 標準語形과는 勿論, 鮮初 文獻語形과도 例異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卽 鮮初 文獻語에서 /닛-/과 같이 그 語幹이 單音節形임에 대해서 本島方言에서는 /이스-/와 같이 그 語幹이 二音節形으로 實現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以上 三形態 卽 鮮初 文獻語形 /닛-/과, 現在의 標準語形 /잇-/ , 그리고 本島方言形 /이스-/의 三者間의 關係는 어떠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言語地理學이 가리켜 주는 方言周圈說은 本島 方言에 實現되는 /이스-/形態가 鮮初 文獻語形보다도 오히려 더 古形임을 暗示하여 주는 것이다.

李基文博士는 “母音의 比較에서 드러나는 興味 있는 事實은 語末母音의 脫落이다. 그리하여 起源의인 二音節 單語가 一音節 單語로 되고 三音節 單語가 二音節로 되었다”⁹⁾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本島 方言의 /이스-/形은 言語의 底層으로서 文獻語 以前時代 卽 高麗 乃至 新羅時代까지도 週及하여 올라가 古代語 再構에 하나의 暗示를 던져 주는 것이라고 생각

9) 李基文:「國語史概說」, (서울:民衆書館, 1974), P. 17

한다.

新羅時代의 王號에 대한 記錄을 보면 三國遺事와 三國史記等に 「尼叱今, 尼斯今, 尼師今」等으로 記寫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 같이 王號를 이르는 말이로되, 그 語音에 있어서는 差異가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尼叱今」은 「닛금」으로 입을 것이며 「尼斯今, 尼師今」은 「니스금」으로 입을 것이 아닌가 한다. 萬若 「尼叱今, 尼斯今, 尼師今」이 다 같은 「닛금」을 表記한 것이라면 같은 한 語彙를 表記하는데 三種의 틀린 漢字를 使用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며, 또한 當時 漢字音의 利用例로 보더라도 「叱」字는 鄉歌等에서 持格促音 및 一般으로 /스/音에 慣用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리고 「斯, 師」字에 대한 當時音을 잘 알 수는 없으나, 이 字의 現代音等으로 미루어 보아 /스/ 乃至 이에 近似한 音이었을 것으로 推定됨에 「尼叱」은 「닛」의 音借이며, 「尼斯, 尼師」는 「니스」의 音借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닛-, 니스-/는 다 같은 뜻으로 /닛다, 니스다/ 即 「繼, 嗣」를 뜻하는 말로서 新羅時代의 王號의 稱號에 /닛금, 니스금/ 兩形態가 並存하여 있었음을 推察할 수 있으며, 이것은 新羅時代는 아직 語幹末 母音의 脫落이 遂行되지 않았고, /닛-, 니스-/의 兩形態를 보임은 /니스-/形에서 /닛-/形으로 轉化되어가는 過渡的 並存期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이 語辭는 니스>닛>잇(繼)과 같은 變遷 過程을 거쳐 現在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本島 方言에서 實現되는 /이스-/ 形態는 아직 語幹末 母音을 維持하고 있는 二音節形으로서 이것은 15世紀 文獻語形보다도 더 古層이며 高麗 乃至 新羅時代까지도 遡及하여 올라 갈 수 있는 言語의 底層으로 推定하여 볼 때 古代國語의 再構리는 重要한 國語史의 意義를 지닌 것이라고 본다.

(3) 꺾다 (折)

재 너려 티샤 두 갠히 꺾그너 <龍歌. 36>

곳 꺾고려 호신대 <月印二. 36>

다 꺾거 滅후도다 <月釋. 八. 56>

헐며 꺾는 스시에 <法華. 三. 139>

오늘날 /꺾다(折)/의 語辭는, 鮮初 文獻에서는 위에 例舉한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語幹形이 /꺾-/이라고 본다. 그리고 /꺾-/語辭는 그 活用에 있어서 母音 위에서는 [ㄱ]音이 들어나지마는 子音 위에서는 [ㄱ]音은 發音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語辭는 /꺾다>꺾다/와 같이 그 語形이 變遷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니, 即 強音化現象에 依해서 語頭音이 [ㄱ]의 된소리를 가지게 되었고, 또 [시]의 末音은 逆行同化에 依해서 [ㄱ]받침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現在 [ㄱ]받침을 가지는 말이 元來는 모두 [시]末音으로 그치는 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例를 들면 /꺾다>꺾다(折), 갓다>꺾다(割), 꺾다>뒹다(磨) 뽕다>뽕다(東), 섞다>섞다(混), 엮다>엮다(編), 볶다>볶다(炒)…/ 들이 이에 속할 것이다.

以上 言述한 바와 같이 鮮初의 文獻語形인 /것- /과 標準語인 /꺾- /形에 대해서 本島 方言에서는 /거끄- /로 實現됨을 볼 수 있으니, 그 活用은 /거끄니, 거끄면, 거끄고, 거끄지 거끄라, 거끄다 /로 된다. 이것은 標準語形과 鮮初 文獻語에 있어서의 그 語幹이 共히 單音節이고 閉音節임에 대해서 本島 方言形은 그 語幹이 開音節이며 二音節形 같이 活用되고 있음이 그 特色이다.

이것은 本島 方言에 있어 語幹末 母音이 아직 脫落되지 않는 語語의 底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語形은 鮮初 文獻語形 /꺾- /보다 더 그 以前時代로 遡及하여 올라 갈 수 있는 것으로 推定됨은 이미 앞에서 言述한 理由에서이다.

그리고 Ural-Altai 語族의 特徵의 하나로서 語幹末에 重子音이 오는 것을 忌避하는 傾向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理由에서 보더라도, 이 語辭의 古代語形으로서의 元來 /것그- /와 같이 二音節의 語幹形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本島 方言에서는 아직도 語幹末音이 單子音으로 되어 있어 原則적으로 語幹末音에 子音群을 가짐을 忌避하는 傾向이 濃厚하다고 본다.

(標準語)	(濟州島方言)
넙다(廣)	넙다
없다(無)	엇다
여덟(八)	여덱
흙(土)	후
닭(鷄)	닥

以上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標準語에서의 重子音이 本島 方言에서는 單子音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Ural-Altai 語族이 가지는 特質로 보거나, 言語地理學的 側面에서 볼 때 本島 方言形이 古形임을 推定할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鮮初 文獻에서의 /꺾-, 꺾-, 꺾-, 닭-, 과 같은 語辭의 語形은 다 같이 그 語幹末音에 重子音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古代語形으로는 아마 그 末音이 母音型으로 그 語幹은 /것그-, 갓그-, 닭그-, 꺾그- /形이었으리라고 推定되는 것이며, 따라서 本島 方言의 /가끄- /型은 15世紀 以前의 古語層의 한 殘影으로 推想되지마는 文獻上으로 傍證할 수가 없는 것이 遺憾이다.

(4) 있다(有)

/있다(有)/의 語辭는 15世紀 國語에 있어 그 語幹이 /이시-, 잇-, 시- /形으로 나타나니 /이시- /는 母音 및 有聲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앞에 나타났으며, 그 밖의 語尾 앞에서는 /잇- /으로 交替되었으며, /시- /는 大體로 [i]로 끝난 單語 뒤에서 나타난 例가 많다.

가리라 허리 이시나 <龍歌. 45>

아비 이^ㅅ시며 어미 이^ㅅ샤 <月印. 八. 234>

有^ㅅ는 이^ㅅ실씨라 <月釋. 序. 2>

서^ㅅ를 賊^ㅅ이 잇고 <龍歌. 37>

네도 잇^ㅅ더신가 <〃. 88>

마^ㅅ마니 시^ㅅ며 <능嚴. 八. 131>

무^ㅅ초매 빗글 꾸^ㅅ무물 무^ㅅ초하야 시^ㅅ나 <杜諺. 一九. 29>

가^ㅅ져 질^ㅅ씨라 <蒙山. 3>

以上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있다(有)의 語辭는 /이시-, 잇-/ 및 /시-/의 變形이나 /시-/形은 드물고 그 語尾가 /-고, -더니, -느니/들과 같이 調整母音이 必要하지 않는 語尾가 連結될 때는 語幹은 /잇-/으로 活用되나 調整母音이나 副詞形語尾 /-어/ 또는 元來母音으로 비롯하는 語尾가 連結될 때는 語幹이 /이시-/인 것처럼 活用된다.

그런데 오늘날 標準語에 있어서 形容詞 /있다(有)/는 正則用言으로 그 活用은 잇고, 잇지 잇더니, 잇으니, 잇어...와 같이 規則的 語尾變化를 하고, 그 語幹形은 /잇-/으로 固定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本島 方言에서 '存在'를 意味하는 語幹 形態素가 매우 特異한 活用을 보여 주고 있다. 卽 標準語의 /잇-/에 該當하는 語形이 本島 方言에서는 /이시-, 잇-/과 /시-, 잇-/의 變形이 共時的으로 實現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a)	(b)	(c)
사 ^ㅅ 름 이 ^ㅅ 시 ^ㅅ 나	사 ^ㅅ 름 시 ^ㅅ 나	사 ^ㅅ 름 잇 ^ㅅ 느 ^ㅅ 나
이 ^ㅅ 시 ^ㅅ 면 먹 ^ㅅ 국	시 ^ㅅ 면 먹 ^ㅅ 국	잇 ^ㅅ 으면 먹 ^ㅅ 고
집에 이 ^ㅅ 시 ^ㅅ 라	집에 시 ^ㅅ 라	집에 잇 ^ㅅ 으 ^ㅅ 라
돈 이 ^ㅅ 시 ^ㅅ 난	돈 시 ^ㅅ 난	돈이 잇 ^ㅅ 으 ^ㅅ 니까
잇 ^ㅅ 당 감 ^ㅅ 서	잇 ^ㅅ 당 감 ^ㅅ 서	잇 ^ㅅ 다가 가 ^ㅅ 십 ^ㅅ 시오
잇 ^ㅅ 수 ^ㅅ 다	잇 ^ㅅ 수 ^ㅅ 다	잇 ^ㅅ 읍 ^ㅅ 니다
잇 ^ㅅ 진 먹 ^ㅅ 국	잇 ^ㅅ 진 먹 ^ㅅ 국	잇 ^ㅅ 으면 먹 ^ㅅ 고

위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a)는 /이시-, 잇-/形이며 (b)는 /시-, 잇-/形이고, (c)는 現 標準語形이다. 語例 (a)는 中世國語의 /이시-/와 거의 同軌的 活用을 보여주고 있으며, (b)도 前揭한 바와 같이 中世 文獻에서도 그 語例를 찾아 볼 수가 있으나 다만 /잇-/形은 文獻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本島 方言에서의 /이시-/와 /시-/는 같은 文脈에서 自由로 交替될 수 있는 것이며 使用 頻度로 보아서도 이 兩形은 거의 同勢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오늘날 標準語에 있어서 /잇-(有)의 語幹 形態素는 어떠한 經緯로서 形成된 것일까? 이 語辭는 原來 二音節인 /이시-/인데 前述한 바와 같이 語幹末 母音의 弱화

脫落에 依해서 單音節인 /있- /形으로 縮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15世紀 文獻語 形인 /이시-, 잇- /의 不規則 語幹形은 /이시- /의 二音節語에서 語末 母音의 弱化 脫落에 依한 單音節語로의 變化 過程에 있는 한 過渡的 形態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15世紀 文獻語에 있어서 /이시- /語辭의 活用은 前揭한 바와 같이 /이시나, 이시년, 이시니, 이시도... / 등의 /이시- /形과 /있고, 잇지, 잇더니, 잇느니, 잇거늘... / 등 /잇- /의 兩形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이 語辭에 아직은 語幹末 母音의 弱化 脫落 現象이 完全 遂行되기 前의 한 過渡期的 形態를 보여 주는 것으로 먼저 /-고, -지, -더니, -느니, -거시늘 / 등 子音을 가진 語尾 위에서 우선 /이시- /의 語幹末 母音이 脫落 現象을 보여 /잇- /으로 縮約되었다고 생각되니 이것은 우리 國語에서 母音間에서 音響度(sonority)가 적은 [K·T·P]들 子音이 弱化되어 가려는 現象이 있음과 아울러 생각할 때 이 語辭는 元來 /이시고, 이시더니, 이시거늘, 이시지 / 등과 같이 /이시- /形이었으나 그 語尾에 있는 /가·다·스 / 등 子音이 母音間에 오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語幹末 母音을 脫落시켜 /잇거늘, 잇더니, 있고 / 등으로 되어 子音衝突을 하면서도 母音과 連結되는 것을 避하려는 結果 우선 먼저 sonority가 第一 적은 破裂音系 子音 위에서 語幹末 母音의 脫落을 가져왔고, 다음으로 다른 音 위에서도 語幹末 母音인 弱化 脫落 現象을 일으켜, 結局 오늘날의 標準語形 /잇- /으로 變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本島 方言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15世紀 文獻 語形과 거의 같은 形態를 共時態로서 찾아 볼 수가 있어, 또한 여기에서도 本島 方言이 15世紀 前後의 古語層을 保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 /시- /形은 前揭한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世紀 文獻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이 /시- /形態에 대해서 梁柱東博士는 大體 /시- /는 /이시-(有) /의 略語라고 하였으며 尊稱助動詞 /시 /의 窮極的 原語도 /이시 /에 있다고 하였다.¹⁰⁾

다음 玄平孝博士는 이 ‘시-’形態는 鮮初以前 時代 즉 新羅時代에 이미 存在辭 ‘이시다’의 異形態로 ‘시다’가 言衆들 間에서 獨立語辭로 흔히 使用되어 왔음을 鄉歌에서의 語例를 들어가며 主張하였다.¹¹⁾

以上 兩博士의 所論은 /시- /가 大體로 /이시다 /의 略語 乃至 異形態라는 主張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의 管見으로는 오늘날 國語에서 /있다 /의 語辭는 「有」와 「在」의 表現에 두루 쓰이고 있으니, 이것은 元來 所有와 所在의 二概念이 唇齒間의 關係임을 생각할 때 受肯이 간다. 그러나 元來 「有」의 뜻에는 /이시- /요 「在」의 뜻에는 /시- /로 區別 使用되던 것이 所有와 所在의 兩概念의 類似性으로 인해서 그 語辭도 /잇- / 하나로 統合

10) 梁柱東:「麗譚箋注」, (서울: 乙酉文化社, 1957), PP. 52~3

11) 玄平孝:「高麗歌謠에 나타난 /-고시- / 形態에 대하여」, (「國語學」第3輯, 1975), PP. 123~4

되어버렸으며 따라서 /시-/形은 自然 消滅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臆測을 하여본다.

그래서 이 /시-/形은 오늘날 標準語에서는 없으나, 本島 方言에 있어서는 前掲한 語例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形은 共時態로서 優勢하게 實現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5世紀 文獻語形과 比較하여 別差가 없는 것으로 推定되니 이 또한 本島 方言이 15世紀 前後의 古語形을 保存하고 있음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本島 方言에서는 語例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活用に 있어 語幹型이 /시-/와 /깃-/의 不規則形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그 特異性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異形態 /시-/와 /깃-/은 어떻게 해서 形成된 것일까? 大体로 母音이나 有聲子音으로 시작되는 語尾들 앞에서는 /시-/로 되고 子音(특히 破裂音)으로 시작되는 語尾들 앞에서는 /깃-/으로 나타남이 形態素의 異形態들 間의 交替 條件이라 생각된다.

子音(破裂音) 앞에서 /깃-/形으로 /스/음이 添入됨은 大体로 sonority가 적은 子音 /ㄱ, ㄷ, ㅈ/ 등의 음이 sonority가 큰 母音間에 介在함을 克服하는 傾向이 있기 까닭이니 즉 /시고, 시다, 지지/와 같이 되며는 母音間에서 破裂子音은 本音を 維持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여기에 子音衝突이란 無理를 克服하면서 /스/음을 添入시켜 語尾의 本音を 維持하려는 努力에서, /스/음이 添入되어 /깃-/形이 形成된 것이 아닐까 한다. 以上 言述한 바는 用言을 中心으로 하여 語末母音의 脫落現象에 대해서 考察하여 보았다.

오늘날 國語의 標準語에서 用言의 語幹形이 單音節이며 閉音節로 끝나는 語辭는 起源적으로 二音節이며 開音節語이 있으리라는 推定을 文獻的 事實이나 方言學的 側面에서 볼 때 立證이 된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있어서 本島 方言은 15世紀 前後의 古形態의 形迹을 보여 주고 있어 國語史的으로 볼 때 古代語의 再構上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

2. 体言에 있어서도 古代 國語에서는 語末 母音을 保存하던 것이 後世에 내려오면서 語末 母音이 次次 脫落되어 起源적인 二音節 單語가 一音節로 되고 三音節 單語가 二音節로 되었다고 推想되니, 그것은 文獻的 事實을 통해서나 또는 同系와의 比較 考察을 통해서 그렇게 推察 할 수가 있다.

李朝 文獻을 통해서 볼때도 /드르>들(野), 거우르>거울(鏡), 비르>별(崖), 터리>털(毛) /로 변해 온 語例를 찾아 볼 수 있으니, 이 語末 母音의 脫落에 의해 그 語形이 오늘날과 같이 縮小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드르의 龍이 싸호아 <龍歌. 69>

무려운 거우루노(圓鏡) <능殿. 七. 14>

濕遷 쇠벽무 <龍歌. 3. 13>

거부비 터리와 툃디 썰 곧거니 <능殿. 一. 74>

以上 例學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李朝文獻에서는 語末 母音이 脫落하기 前의 形態를 보여주는 語例과 같이 殘지는 많으나 아직 殘存하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語末 母音 保存現象은 古代에 올라 갈수록 더욱 明瞭하였음을 짐작케 하니, 三國史記 등의 古記錄을 통해서 보면, 百濟語 地名의 特徵으로 「夫里(Pu-ri)」를 들 수 있다.

夫餘郡 本百濟 所夫里郡 <三國史記. 卷三六. 地理三>

陵城縣 本百濟 余陵夫里郡 < " " " >

以上과 같이 이것은 新羅語 地名의 「火(Por)」와 같은 것으로 百濟語에서는 「夫里 (Pu-ri)」로 發音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 一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百濟語에서는 元來 語末 母音을 保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現代國語에서 「熊」은 單音節語인 /곰/이나, 古代國語에 있어서는 二音節이며 開音節語가 아니었던가 하니 그것은 文獻을 통해서 볼 때, 比較的 後代의 記錄이기는 하지만 「熊津」을 龍飛御天歌에서는 「고마누르」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고마」는 「熊」을 이르는 語辭임에 틀림이 없다. 뿐만아니라 中國 梁書에도 「熊津」을 「固麻」라고 記錄하고 있으며, 또 日本書紀에서도 「熊津」을 「久麻那利, 久麻怒利」라고 記錄되어 있으니, 여기서 「固麻, 久麻」는 熊 卽 「고마」의 表記일 것이다. 그래서 二音節인 「고마」는 語末 母音의 弱化 脫落에 依해서 一音節인 現在의 「곰」形으로 되었을 것이다.

또 現代 國語에서 「鉛」을 意味하는 單語는 一音節語인 /납/이지만은 이 單語도 古代에 올라가서는 元來 二音節 語形이었다고 推想된다. 13世紀의 語彙資料인 鄉藥救急方에는 「鉛俗云那勿」이라고 記錄되어 있으니 이 「那勿」은 아마도 /나물/의 表記라고 推定되니, 이것은 13世紀에 /那勿(나물)/이란 單語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게 한다. 또 이 /namər(鉛/形은 日本에도 일찍이 借用되어 /namari(鉛)/形을 남기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와 같이 /나물/ 卽 起源의으로 二音節語가 語末 母音의 弱化 脫落에 따라 單音節인 /납/으로 發達된 것이라고 推察된다.

또 現代語 /목(項)/도 單音節語이나 起源의으로는 二音節語에서부터 變하여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臨關郡 本毛火一作蚊伐郡 <三國史記. 三十四. 地理一>

여기서 「蚊伐」은 /모개벌/을 記寫한 것인 즉 /모개/는 「關, 隘」의 뜻이니 訓蒙字會에서는 「隘, 關」字를 각각 /모개익, 모개관/으로 訓하고 있다. 이와 같이 起源的으로는 二音節이던 것이 語末 母音의 弱化 脫落에 依해서 單音節인 /목/으로 變한 것이라 생각되거니와, 本島 方言에서는 아직도 /모개/形을 찾아 볼 수 있으나, 그 頻度는 매우 稀少하다.

다음으로 本島 方言에 있어 語末 母音 脫落現象과 關聯된, 몇가지 特異한 語例를 들어, 文獻語와 比較 그 關係를 究明하여 보겠다.

本島 方言에서는 「野」를 뜻하는 語辭로서 /들/과 /드르/의 變形이 並存하니, /들/은 물론 標準語이며 /드르/는 本島 固有方言으로 鮮初 文獻語形과 같은 말이라고 할 것이다.

윗고리어나 뵤 드르허어나 <釋譜. 一九. 43>

훈 니븐 드르헤 드르시니 <月印. 八. 93>

드르교(郊), 드르평(坪) <訓蒙. 上. 4>

그러나 오늘날 教育의 普及과 急激한 社會的 變遷으로 標準語인 /들/形이 優勢를 보이고 있으며, /드르/形은 改新波에 밀려 漸次 埋沒되어 가는 趨勢에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地名等에 使用되고 있기 여기 그 語例를 들어본다.

정드르 <濟州市 龍潭洞一部>

넙은드르 < " 老衡洞 廣坪部落>

도련드르 < " 三陽洞 道蓮部落>

웃드르 <山間部落>

以上과 같은 本島 方言의 /드르/는 15世紀 文獻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는 言語의 底層으로서 標準語에서는 이미 /드르/들/로 變하였으니, 이는 語末 母音의 弱化 脫落에 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 國語에는 內破末音으로 이루어진 語辭가 많으나, 이는 元來 外破音 中 母音으로 그쳤던 것이 끝의 母音이 脫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기에 대해서 本島 方言은 아직도 語末 母音을 維持하고 있다고 하겠으니, 이것은 15世紀 言語의 古層이 保存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오늘날 「泉」을 이르는 말은 標準語에서는 /샘/이나, 本島 方言에서는 /샘, 새미/等의 變形이 共時態로서 存在하니 /샘/은 勿論 標準語形이나 /새미/形은 文獻上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形態라 생각된다.

식미 기픈 므른 <龍歌. 2>

샘爲泉 <訓正. 用字例>

흐르는 샘 <釋譜. 一三. 23>

샘과 못과 <능嚴. 三. 18>

泉 샘천 <字會>

以上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鮮初 文獻에서는 一音節인 /샘/으로 나타나니 /샘/샘/으로 變하여 오늘날의 標準語形 /샘/이 된 것이겠다.

本島 方言에서도 勿論 標準語形인 /샘/形이 優勢한 편이나, 二音節形인 /새미/形도 共時態로 實現되는데, 特히 地名等의 複合語形에서 이 語形이 많이 나타난다. 그것은 單獨的으로는 그 語形이 이미 變하여 버린 語辭라도 複合語를 이룰 경우에는 그 속에 古形이 그

대로 殘存하여 있는 경우가 國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새미동 <海州市 觀音寺地名>

새서미 <新泉>

웃새미 <上泉>

알새미 <下泉>

그러면 여기서 鮮初 文獻語形인 /섬/과 또 오늘날의 標準語形인 /셈/, 그리고 本島 方言形인 /새미/와의 相互 關係는 어떠한 것일까?

이 「泉」語의 形態를 究明하려는 文獻資料를 따라 鮮初 그 以前을 遡及하여 올라 갈 수는 없다. 그러면 高麗 乃至 新羅時代(또는 그 以前 時代까지)에 있어서의 이 말의 再構는 不可能할 것인가? 여기에 方言은 文獻資料의 缺乏을 補足하여 주는 重要한 資料로서 登場하게 되는 것이니, 現在 그 자취를 감추고 埋沒되어 버린 語彙의 諸 層位를 그 語彙의 現在의 露頭를 調査하여서 古語의 層位를 再建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言語地活學的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本島 方言에 남겨져 있는 /새미/形이 鮮初 文獻語形보다도 더 古形일 可能性이 甚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새미(se-mi)/語形의 方言 地域上에 있어서의 分布를 보아도 小倉進平博士의 「鮮鮮方言의 研究」(上)와 또 金亨奎博士의 「韓國方言研究」에 依하면 大槪 慶尙南, 北道에 많이 分布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事實等은 言語地理學的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새미/語形은 15世紀 文獻語 以前의 古語層의 殘存인을 推定해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말에 語末 母音의 弱化脫落現象이 있음과 아울러 생각해 볼 때 元來 「泉」의 古語形은 二音節語인 /새미/인 것이, 後代에 내려 오면서 單音節인 /섬/으로 變하여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近來에 와서 Altai語族과 系統上으로 關係가 깊은 것으로 云謂되고 있는 日本語와의 比較에서, 日本語에서는 「泉」을 [isumi]라고 하니, 이것도 /새미/形과 關聯이 있는 것이 아닐가도 생각된다. 以上 言述한 바와 같이 本島方言 /새미/形은 鮮初 文獻語 以前의 古形이라고 推定하여 보는 것이다.

또 標準語인 /꽃(花)/에 대해서도 本島 方言에서는 /고장/形이 共時態로서 存在하니 이것은 一次 語幹 /꽃/에 接尾辭 /-ag/이 添可되어 第二次的 語幹을 形成한 것이 아닌 가도 생각된다, 한편 本島의 方言學的 또는 言語地理學的인 特殊性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고장/形은 鮮初 文獻語形인 /꽃/形을 더 遡及하여 올라 갈 수 있는 古語層의 殘存가 아닐가도 推定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文獻의 뒷받침과 比較의 觀點에서 筆者는 이를 考證할 만한 資料와 準備을 갖추지 못하였지, 다만 國語에서 語末 母音의 弱化 脫落現象이 있어 起源的으로 二音節語가 單音節語로 短縮되어 왔다는 事實로 미루어 볼 때, 元來 이 「花」의 語幹은 /고자>꽃>꽃>꽃다 같이 變하여 온 것이 아닐가 推定하여 본다.

그외에도 木島 方言에는 /우치(衣)/, /나래/ (낮 비슷한 연장) 등의 特異한 語形을 散見할 수가 있는데, 이들 語辭들도 아직 語末 母音의 脫落 以前의 古形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前述한 바와 같이 文獻上 또는 同系語와의 比較的 傍證 資料의 未備로 다만 推想에 그칠 뿐이다.

以上 言述한 바와 같이 우리 國語는 原來는 開音節語이었으나 後代에 와서 語末 母音이 弱化 脫落되면서 閉音節語로 變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

다음은 國語와 同系統에 屬한다고 생각되는 言語間에 있어서의 比較的 觀點에서 觀察하여 본다.

Altai語 中에서 開音節로 되어 있는 言語는 滿洲語와 日本語이며 蒙古語 및 國語는 閉音節로 되어 있으나, 아직 그 關係가 學界에서 分明히 究明되어 있지는 않다.

國語와 가장 密接한 關係에 있다고 생각되는 滿洲語와를 比較하여 볼 때, 國語에는 語末 母音의 脫落 現象이 있음이 밝혀져, 國語 語彙의 變遷 形成되어 온 자취를 더듬어 볼 수가 있겠다. 大部分이 이미 學界에서 알려진 事實이지만 여기 그들 語例를 引用하며 들어 본다.

(國 語)	(滿洲語)
골(谷)	holo, golo
굿(巫事)	xutu
길(道路)	girin
벌(平原)	fila
팥(蓬)	suku
닐다(起)	ili
붉다(赤)	Fulgiyan
잡다(捕)	žafa-

또 國語와 系統上 그 關係가 깊은 것으로 云謂되고 있는 日本語와의 比較에서 보면

(國 語)	pat(田),	nat(鎌),	kom(熊),	kor(洞),
(日本語)	pata,	nata,	kuma,	kura,

등 이런 特殊한 語彙 層位의 存在는 國語와 日本語 사이에는 일찌기 남다른 關係가 있었음을 立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原語에선 語末에 母音이 있었던 것이 後에 그 母音이 弱化 脫落되었다고 보는 것이 正當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以上 滿洲語와 日本語의 語例를 통해서 볼 때, 이들 言語의 音節 構造의 特徵의 하나로,

그 末音에 母音을 가지고 있는, 즉 閉音節性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國語에는 이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對應의 關係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語末에 母音이 添加되어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語末 母音이 脫落되어 閉音 母音의 語形이 생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金亨奎博士는 이와 같은 우리 國語에 있어서의 語末 母音의 脫落 現象에 대해서 우리말과 同系統의 言語(日本語, 滿洲語)들과 語彙를 서로 對應시켜 보고, 그 對應의 關係에 대해서는 Jespersen의 語末 母音이 弱化 脫落되어 가는 傾向이 있음은 言語 一般에 나타나는 現象이라는 說을 引用 原語에선 語末에 母音이 있었던 것이 後에 그 母音이 弱化 脫落되었다고 主張하고, 國語도 亦是 그와 같은 길을 걷고 變해 왔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구나 日本語, 滿洲語와 對照해 볼 때, 그 傾向을 더욱 分明히 把握할 수 있음을 主張하였다.¹²⁾

IV

言語變遷의 主要한 要因으로 人間이 努力을 節約하려는 經濟的 本能에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言語에 있어 語音은 縮小되고 籠略化의 길을 걸어 왔을 것이다. 國語도 亦是 그 길을 걸었음이 分明하니 오늘날 우리말 語彙는 大部分이 그 外形을 漸次 縮小시키는 結果를 가져 왔음을 알게 된다. 本 小稿에서는 이와 같은 語形 縮小現象 가운데 특히 語幹末 母音의 脫落에 대하여 國語史의인 面에서 특히 本島 方言과 關聯해서 考察하여 보았다.

用言에 있어 오늘날 標準語에서 그 語幹이 單音節이고 語幹末 子音이 內破音으로 끝남에 대해서, 本島 方言에서는 語幹이 二音節이고 語幹末이 母音으로 끝남을 볼 수 있음이 그 特色인데, 이것은 本島 方言이 지니는 言語地理學的 側面과 또한 過去 文獻的 事實과를 結付하며 考究하여 볼 때, 本島 方言形은 아직 語末 母音이 脫落되기 前의 적어도 15世紀 乃至 그 以前의 古形態를 아직도 保存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며, 또한 文獻 以前時代의 言語 狀態까지도 어느 程度 推測하여 낼 수가 있다. 即 國語 音韻史上 音節末 子音의 內破化가 古代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어느 程度 推定케 한다.

다음 體言에 있어서 語末 母音의 脫落에 대해서는 文獻을 通해서 볼 때, 大体로 15世紀 또는 훨씬 그 以前에 이미 語末 母音이 弱化 脫落되어, 起源的인 二音節語가 一音節로 되고 三音節 單語가 二音節로 되었다고 推察된다. 本島 方言에서도 體言에 있어서는 標準語와 比較해서 그렇게 注目할만한 特色은 없으나 여기에 「野」를 意味하는 /드르/같은 語彙는 15世紀 文獻語形과 一致되는 語形임을 알 수 있다. 이 /드르/는 오늘날 語末 /一/母音

12) 金亨奎:「國語史研究」, 서울: 一潮閣(1974), PP. 62~84

의 脫落으로 /들/이 形成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오늘날 國語에는 內破末音으로 이루어진 語辭가 많으나 이것은 元來 外破音 즉 母音으로 그쳤던 것이 끝의 母音이 脫落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것은 比較的 考察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나 鮮初 文獻을 통해서도 /드르>들/, /저우루>저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알 수가 있다.

以上 言述한 바와 같이 우리 國語는 원래 開音節語이었으나 後代에 와서 語末 母音이 弱化 脫落되면서 閉音節로 變하여 겹음을 짐작케하니, Altai語族이 원래 開音節語라는 것을 言語學者들이 考證한지 이미 오랜 것이다.

本島 方言은 一律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語辭에 따라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15世紀 또는 文獻 以前時代 言語의 底層임을 推想케하는 言語 發達의 後進性을 보여 주고 있음은 言語地理學的으로 보아도 受肯이 가는 일이며, 또한 古代國語의 再構라는 國語史的 意義를 지닌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 Summary —

A Study on Omission of Word Ending Vowels

—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Jeju—Do Dialect —

by Kim Hong—sik

It is well known that the sounds of a word have been left out and shorten when we study the change of language from the phonological point of view in language. This is mainly because one has an economic instinct of saving one's labor.

It is also obvious that the national language has undergone the same process. With this most of the vocabularies have been gradually reduced in outward forms from the history of the national language.

In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 phenomenon of reduction of the word form, especially of omission of word ending vowels with an emphasis of Jeju—do dialect.

Nowadays our standard language has a monosyllabic stem and ends in implosives in the stem ending consonants where as Jeju—do dialect ends in open syllables, the form of vowel, to insert vowels into the stem ending.

When we investigate the forms of Jeju—do dialects in connection with both the dialectology and bibliographical materials, it is believed that the dialects preserve the old forms nowadays—the forms before leaving out word ending vowel, before bibliographical word at 15 century. this gives us a suggestion to re-establish the old national language before bibliography.